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萬世保寧



신 준 희
(申俊熙)
보령시장

1. 머리말

흔히들 보령을 가리켜 충청남도의 축소판, 나아가 한국의 작은꼴이라 한다. 그것은 반드시 보령시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지역의 풍토와 정서, 발전기반을 함께 놓고 볼 때 그 답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보령을 왜 「만세보령」(萬世保寧)이라 하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한다. 따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경제를 꾸리고, 협동사회를 이루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 여기에서 지역사회가 형성되고 구성원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공동체」를 회구한다. 만세보령은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깊은 뜻이 담긴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이 고장에 뿌리내린 정신적 지주이며

보령시민들의 정념(情念)인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의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선자치시정 2기의 시대적 소명과 책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미래사회에 대한 상반된 기대와 대응인식, 실리위주의 국제적 관계변화, 무한경쟁체제 진입이 점점 가시화 되면서 최근 IMF 경제난 속에서 정부수립 50주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개혁조치 일환으로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뜨거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세계화-지방화-정보화가 교차되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이 때,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정과 용기를 갖고 현실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만 한다.

우리 보령시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21세기를 향한 만세보령 복지시대의 대항해를 위해 힘차게 닻을 올리려 한다.

II. 만세보령 민선시정 2기의 힘찬 출범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을 기필코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위주의 「열린행정」과 경쟁력을 갖추는 「경영행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만세보령 민선 2기의 중점시책 방향을 세워 시정운영 목표를 구체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첫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시정운영체제의 조기구축을 위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창출과 시민만족 및 감동행정을 역점 추진한다.

둘째는 IMF 조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총체적 노력으로 실질적인 실업대책 마련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속적인 지역경제 도약기반을 강화한다.

셋째는, 지방재정 확충과 경영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목표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긴축운용 및 수지균형으로 건전재정 도모와 함께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착실히 전개한다.

넷째는, 지역균형개발과 세계로 향한 4계절형 문화·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다양한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사실,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커다란 난관과 위기에 봉착해 있는 바, IMF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세계는 효율과 능률의 극대화만이 생존논리로 자리하게 되었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강도높은 개혁정책과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보령시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13만 시민과 함께 전 공직자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스스로의 체질변화를 위한 개혁마인드 함양과 그 실천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령자치시정은 시대적 사명을 재인식하여 자율과 참여,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만세보령의 시대」를 향해 맡은 바 소임에 전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 우리 보령시의 민선 2기 시정 실천의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히 다지고자 한다.

첫째는 「인본적 열린시정」의 구현이다. 많이 개선이 되었고 생각되나 아직도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관료적 행정관이 남아있는 바, 이를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제일주의에 입각한 시민만족·시민감동의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다양한 시민 여론수렴과 시책반영으로 시민본위의 「인본적 열린행정」을 착실히 구현코자 한다.

둘째는 「경쟁우위의 경영행정」이다. 기존 행정조직의 혁신적 구조조정을 통한 신뢰받는 봉사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시민 위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의 완화조치 및 비능률 요소의 과감한 제거와 종합민원실을 새롭게 단장하여 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민자·외자유치를 적극 촉진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셋째는 「미래지향적 시정발전」이다. 민선 2기의 시정목표에 걸맞는 새로운 시책방향 및 계획수립 실천과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응기 위한 종합발전전략을 가시화하며, 특히 민선 1기 시정운영기조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업전개를 모색하는 등 역동적인 시정수행으로 21세기 진입기반을 조기에 구축한다. 이로써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충청남도내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발전 모델도시로 육성시킬 각오이다.

III. 자치시정 발전전략과 행복공동체 구축

우리 보령시는 이미 2016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21세기를 지향하는 만세보령 자치시정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착실히 실천에 임하고 있으며, 관광특구와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관광개발과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으로 획기적인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시정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시책추진 방향에 입각한 시정역량과 지역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첫째는 21세기 위대한 만세보령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인 시민들의 생산적인 의사반영과 시민참여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특히, 「행정실명제·정책실명제」 실시로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는 1차산업인 농수산업은 보령지역의 생업기반이자 지역산업의 기본토대인만큼, 품질·가격·디자인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신규산업역내(域內)유입을 위해서는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보령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장항선 직선·복선화 개량, 보령신항 및 물류단지 건설, 대천·오천항

확충으로 그야말로 4통8달의 양호한 육상·해상교통망과 물류처리능력 및 시내권에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가 형성되어 기업하기에는 가장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는 우리 보령은 산·들·바다가 어울어져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보령시의 관광산업이 국제수준급의 관광명소로 확고부동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있는 그대로 보전함과 동시에 관광지 수준을 고급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축제, 문화이벤트, 페스티벌 등 지역 고유의 다채로운 문화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접목, 자연과 지역문화를 조화시켜야 한다.

넷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념은 어떤 개발정책에 있어서도 그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적 전제조건인 바, 이에 보령시에서는 당초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수렴과 환경적 영향을 충실히 검토, 중장기적으로 개발효과와 보존효과를 상충결합

함으로써 소위 「시너지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는 보령시가 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세계로 향한 열린 자치시정을 이루어내야 하며, 이는 환황해권 전진기지화 추진을 위한 보령신항만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서해안 중심도시로서의 자리매김과 함께 세계화 시책개발에 주력하여 현재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청포현과의 관계발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주·구주·유럽 등으로 교류대상국가의 확대·다변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취임 당시 13만 보령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보령사랑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여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령사랑운동은 보령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도 사랑하는 보령의 자연사랑 운동이며, 보령을 사랑하는 시민은 휴지나 조그만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보령의 환경을 사랑하는 운동이다. 또한 보령관내의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돌봐드리기, 장애

인과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보령사람을 사랑하는 운동이고, 문화유적과 전통의식, 경로호친 사상을 보전하고, 미풍양속을 앙양하는 보령의 문화를 사랑하는 운동이다.

아울러 보령에 주민등록 옮기기, 담배 한갑이라도 보령에서 사고, 지역업체 이용하기 등을 통해 보령경제를 살리는 운동이며, 보령사람이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여 사건·사고가 없는 편안한 보령시민 사회운동을 중단 없이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령시민 모두의 공동체 의식으로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학문과 예술이 꽃을 피워, 차원 높은 문화도시를 창조함으로써 살기좋은 보령시 민사회를 이루는 범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보령시의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시민들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보령사랑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만세보령 행복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 이념에

따른 바람직한 향토의식과 지역정신이 공동체를 굳건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나라사랑운동으로 확대·승화발전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신운동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Ⅳ. 21세기 서해안 중핵도시로의 자리매김

보령시가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중핵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미래에의 발전의지, 정책비전, 그리고 실천전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보령신항 건설,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한 국도 확충, 장항선 직·복선화, 원산도 연육교 건설은 물론, 대천해수욕장, 무창포·죽도·석대도 해양관광지 개발, 각종 다채로운 해양관광이벤트가 펼쳐진다면 보령시는 국제적인 종합해양관광지로 육성될 것이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연중 크고 작은 행사가 펼쳐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만세보령문화제」를 비롯하여 해수욕장 개장행사와 연계된 국제머드축제, 행·패

러글라이딩대회와 꽃게축제, 천북 굴축제, 사현 포도축제 등이 시기별로 개최되고 있음을 감안, 앞으로는 보령시민과 내외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형 문화행사가 관광지별로 다채롭게 펼쳐질 때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룩될 것이다.

또한 무창포해수욕장에 매월 2~3회의 바다달림(일명 「모세의 기적」)으로 체험관광이 인기가 높아, 앞으로 보령시에서는 관광행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각 관광기간 연계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단기경유형에서 장기체류형으로, 정적관광에서 동적관광 등으로의 관광행태 변화에 걸맞는 프로그램 특화와 보령시 전역에 산재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역사탐방관광 및 최근에 각광받는 생태관광 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킨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발효과는 단기적임에 비해 보존효과는 장기적인 속성이 있는 바, 단기적 효과를 쫓는 기존의 개발관행이 환경 파괴와 환경오염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

연파괴, 환경오염, 생태파괴로 인한 지역의 생존가능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시가 보유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호하면서 청정해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이 지속가능하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만세보령의 유구한 지역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21세기를 확고히 이끌어갈 시민정신의 정립은 매우 절실한 과제인 바 이를 통해 서해안의 중심도시민에 걸맞는 높은 의식수준을 함양한 만세보령 시민정신 정립에 힘쓰겠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복지 체제구축과 정신적·물질적 풍요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재구축에 매진하고자 한다.

또한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의료지원 강화, 자원봉사활동 촉진은 물론, 노인복지·장애인복지·여성복지에 이르기까지 찾아가 세심하게 보살피는 복지서비스 확충과 현재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세보령장학회」 운영에도 더욱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우수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할 작정이다.

V. 맺음말

최근의 IMF 경제난을 조속히 극복하는 데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령시도 예외없이 지역경기의 침체, 실업증가 등 화급한 지역현안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극복하는데 시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조정을 추진, 경제와 경영을 우선으로 하는 시정운영을 펼치고자 한다.

따라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업구제 및 중소기업지원과 함께 공공사업 영역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IMF 경제난 극복대책 추진이 지역경제 회생 및 실물경제의 활성화 기반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바탕을 둔 토착산업의 건전육성과 수출활로 모색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며, 주로 대기

업 중심의 경쟁우위산업은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 그 과실(果實)이 역내에 환원되도록 각별히 유념할 작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충청남도도 긴밀히 협의하여 모든 지원정책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작정이다. 또한 보령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충실히 고려하여,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충족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와 외자를 적극 유치하여 세계로 열린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중단없이 전개할 때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 건설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우리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직자가 시민을 정성껏 섬기는 「참여와 봉사의 열린 행정」의 구현, 기업가적 정신을 도입한 「효율과 내실있는 경영 행정」의 추진, 지역과 계층간 「균형과 조화있는 지역개발」의 도모, 아름다운 시민사회조성을 위한 「문화의 창달과 관광진흥」

에 시정의 목표를 두고 21세기형 만세보령 시정운영을 굳건히 펼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과 성원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령시가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건설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격려와 지도편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린충남**